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남자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드림팀 버튼(맨 아래)이 경기 도 중 자유투를 실패한 뒤 뽕망치를 맞는 벌칙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남자프로농구 올스타전은 이채로운 볼거리로 관중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윌라후프 대결을 펼치는 농구 스타들의 표정에 즐거움이 가득하다.

▲남자프로농구 올스타전 초대가수로 나선 EXID가 하프타임 축하공연을 통해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 MVP·덩크왕 동시석권 버튼, 별들의 축제 주연

윈드밀 덩크·비트윈더렉 덩크 팬들 탄성  
김민수 데뷔 10년만에 국내 선수 덩크왕  
24명 올스타 댄스·쇼맨십...최고의 선물



프로농구 올스타전은 디온테 버튼(D B)의 '쇼타임'이었다.

디온테 버튼은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올스타전 최우수선수상(MVP)과 덩크슛 콘테스트 챔피언에 동시 등극했다. 버튼은 기자회견의 MVP 투표에서 유효표 63표 중 52표를 획득했다. 그는 올스타전 하프타임에 열린 덩크슛 콘테스트(외국선수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올스타전 역사상 MVP와 덩크슛 챔피언 동시 등극은 버튼이 통산 6번째이자 2009~2010 올스타전 이승준(은퇴) 이후 8년만이다. 버튼이 20점·11리바운드·8어시스트·5스틸로 종합무진 활약한 이정현 드림팀은 오세근 매직팀에 117-104로 승리했다.

## ●버튼 점프에 여기저기 탄성

버튼은 올스타전이 펼쳐지기 전부터 강력한 MVP 후보로 꼽혔다. 올 시즌 내내 엄청난 운동능력을 뽐내며 수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낸 버튼에게 올스타전은 제대로 된 쇼타임 무대였기 때문이다. 버튼은 팬들의 기대대로 4개의 슬램덩크를 폭발시키면서 체육관을 가득 채운(5422명)의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특유의 지그재그 스텝, 절묘한 패스 능력까지 선보였다. 경기 도중 펼쳐진 이벤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음악이 나올 때마다 몸을 흔들면서 춤을 췄으며 자유투가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향한 '곤장 벌칙'에도 기꺼이 응했다.

덩크슛 콘테스트에서도 버튼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그는 올스타 본 경기 이전 펼쳐진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남자프로농구 올스타전은 디온테 버튼을 위한 무대였다. 경기 하프타임에 진행된 덩크슛 콘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버튼은 올스타전 MVP까지 거머쥐며 2배의 기쁨을 맛봤다.

에선에서 팀 동료 서민수가 백보드 옆쪽에 맞춘 공을 공중에서 잡아 그대로 덩크슛으로 연결해 결승에 올랐다.

올스타전 하프타임 때 제임스 켈리(LG)와 결승에서 만난 버튼은 1인 엘리어 윈드밀 덩크슛을 한 뒤 '비트윈더렉(다리사이로 볼을 통과시킨 뒤 시도하는 덩크슛)'까지 성공시키면서 '덩크왕'에 등극했다.

운동능력에서라면 버튼에 뒤지지 않는 켈리 역시 고난이도의 윈드밀 덩크슛을 성공시켰으나 버튼의 강렬함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내선수 부문에서는 김민수(SK)가 팀 동료 최준용(SK)을 따돌리고 '국내 덩크왕'에 등극했다. 김민수는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덩크왕이 됐다.

3점슛 콘테스트에서는 전준범(현대모비스)이 테리코 화이트(SK)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 ●팬들을 위해서라면

올스타전은 승패를 떠나 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팬서비스 경기다.

올해 올스타전은 처음으로 올스타 팬투표 1, 2위를 기록한 오세근(KGC·팬투표 1위)과 이정현(KCC·팬투표 2위)이 드래프트를 통해 팀을 구성해 흥미를 높였다. 선수들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기 전 선수 소개 때 팬들과 함께 등장한 24명의 올스타들은 미리 준비한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본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세근(KGC·200cm), 이종현(현대모비스·202cm), 최준용(SK·201cm), 데이비드 사이먼(KGC·203cm), 제임스 켈리(LG·197cm) 등 장신선수가 포진한 오세근 매직팀은 양동근(현대모비스·181cm), 김태술(삼성·180cm), 김기운(KGC·180cm), 김시래(LG·178cm) 등 이정현 드림팀의 단신선수들이 출전하자 위로 손을 올려 패스를 주고받는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정현 드림팀은 무릎 밑으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응수했다.

양동근은 매치업 상대로 나선 최준용의 얼굴에 볼을 맞춘 뒤 드리블 돌파를 해 폭소를 자아냈다. 마지막 올스타전에 나선 김주성은 3쿼터 김태술의 패스를 받아 엘리어 덩크슛을 성공시키며 화려함을 더했다.

참살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한국남자농구의 '살아있는 레전드' 김주성(가운데)이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현역 마지막 프로농구 올스타전에 참여해 동료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김주성은 올 시즌을 끝으로 정든 유니폼을 벗는다.

## 영상 선물·작별의 포옹 김주성 위한 '작전타임'

### 현장 리포트

'굿바이 김주성'  
원주 DB의 김주성은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레전드다. 그는 2017~2018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KBL은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마지막 올스타전에 나서는 김주성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1쿼터 첫 작전타임을 알리는 부저가 울리는 순간 잠실학생체육관은 불이 꺼지면서 김주성을 위한 영상이 상영됐다. 1분 남짓한 영상은 'GOOD BYE 김주성'이라는 문구로 끝이 났다. 김주성은 코트 한 가운데서 서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KBL 김영기 총재와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올스타전에 참석한 선수, 코칭스태프 전원이 코트에 사진 촬영을 하며 추억을 남겼다.

우리선수들은 물론이고 외국인선수들까지 김주성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나눴다. 올스타전 단체사진은 추후 액자로 제작되어 DB의 정규리그 최종전(3월 13일 kt전)에 김주성에게 선물로 전달될 예정이다.

KBL은 이번 이벤트를 사전에 김주성에게 알리지 않았다. 김주성은 "경기 도중에 내 영상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이런 행사까지 준비해준 KBL에게 감사한다. 동료들에게도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다.

올스타전에 앞서서 선수들은 경기장 밖에 마련된 푸트트럭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팬들과 사진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성은 "과거에는 밖에서 행사를 하면 불평하는 선수들도 있었다. 선수들은 잠깐 나가서 행사만 참여하지만, 팬들은 추운 날씨에 표를 사고 이벤트를 기다리기 위해 오랜 시간 밖에서 춤을 춘다. 농구 팬들이 자꾸 물어온다고 하지 않나. 조금 춥더라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팬들을 대했으면 한다"고 후배들에게 울림이 깊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참살 | 정지욱 기자

## 셋별 허훈, 특별했던 별들의 잔치 첫 경험

동기들 제치고 유일하게 올스타전 선발  
13일 3X3 경기 이어 공연 준비 구슬땀

올스타전은 이름 그대로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별들의 잔치'다. 최근 들어서는 올스타전 참가 멤버를 모두 팬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출전 자체를 더욱 뜻 깊게 받아들인다. 허훈은 신인이라면 그 의미는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선 단 한 명의 셋별만이 출전 영광을 안았다. 주인공은 부산 kt 허훈(23). 지난해 10월 열린 2017 KBL 국내 신인선수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지목받은 예비 스타는 이번 별들의 잔치에서도 동기들을 제치고 하나뿐인 영광을 안았다.

허훈은 "무엇보다 여기 서 있다는 자체가 얼떨떨하다. TV 중계로만 보던 올스타전이었는데 내가 출전을 하게 됐다. 신기하면서도 뿌듯하다"며 활짝 웃었다. 사실 허훈은 올스타전 참가뿐만이아

나라관전 경험조차 없다.  
2011~2012시즌 올스타전 변외경기로 열렸던 레전드 매치에 출전한 아버지 허재(53) 농구국가대표팀 감독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일이 전부다.

첫 올스타전 출전인 만큼 누구보다 바쁜 이틀을 보냈다. 13일에는 모교 연세대를 대표해 3X3 대학 OB 최강전에 나섰고, 경기 직후 동료 신인들과 함께 다음날 있을 공연 준비도 했다. 허훈은 "조금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인으로서 혼자 나오지 않았다. 형들과 좋은 추억을 쌓는다는 자세로 뛰겠다"고 신인다운 면모를 보였다.

아직 주인공이 결정되지 않은 신인왕 경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팀 동료 양홍석(21)을 비롯해 안영준(23·서울 SK) 등과 경쟁을 펼치는 허훈은 "아직은 리그에 적응하는 단계다. 뛰면 뭘수록 보완해야 할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 물론 "결국 마지막까지 잘하는 사람이 받쳐줄까 생각한다"며 막판까지 신인왕을 향한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도 보였다. 참살 | 곽봉준 기자 shulou@donga.com

## 골프 하와이에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골퍼들 대피 대소동

소니오픈 3R 준비하던 선수들 아연 실색  
퍼티슨, 가족과 육조 매트리스 아래 대피

대회에 여념이 없던 정상급 골퍼들이 때 아닌 미사일 경보에 놀란 가슴을 솥내려야 했다. 사건은 14일(한국시간) 대표적인 휴양지 미국 하와이주에서 일어났다. 현지시간으로 13일 주말 오전이던 이날 난태풍은 탄도미사일 경보가 울렸다. 한가롭게 주말 아침을 보내던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대피명령을 듣고 저마다 은신처를 찾아다녀야 했다.

볼퐁은 현지에서 머물던 정상급 골퍼들에게도 튀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 오픈에 출전 중이던 선수들은 경보를 듣고 황급히 대피장소를 구했다. 위급한 현지상황은 선수들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잘 드러났다. 3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던 존 퍼티슨(미국)은 자신의 트위터에 "아내와 아기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육조 매트리스 아래에 들어가 있다. 제발 이 폭탄 위협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다른 선수들 역시 각자의 SNS를 통해 놀란 가슴을 표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날 사고는 한 공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하와이 주정부는 경보 발령 약 10분 뒤에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위협은 없다. 앞선 메시지는 실수였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스틴 토마스(미국)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수였지만 우리 모두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쁘다"며 크게 숨을 돌렸다. 역시 비상상황에 빠졌던 PGA 측은 이날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3라운드를 정상적으로 진행시켰다.

고봉준 기자

편살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23년 전통의 중앙회원의 명품과 신뢰를 바탕으로 크리에이티브 주니어 회원권을 선보입니다. 특히 다른 골프서비스 문화를 느껴보십시오.

## 무기명회원권 특별모집 格

**1월 가임 특혜**  
"태국 무료 골프 투어"  
3박 5일

| 구분   | IT 플래티늄   |
|------|---|
| 입회금액 | 1억원   |
| 회원혜택 | 무기명 4인1팀 정회원가로 이용<br>주말예약 월2회 보정(년18회)<br>이용요금 - 1일 그린피 20만원(1인5만원) |
| 이용기간 | 3년 만기 후 보정금 100% 반환   |

지정계좌 : 기업은행 069-110097-01-018 (예금주: 중앙멤버스주)  
\*입회금은 지정계좌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그 외에 개인 은행계좌 또는 현금 입금으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1833-7009

중앙레저그룹 / 중앙회원권 / 중앙멤버스